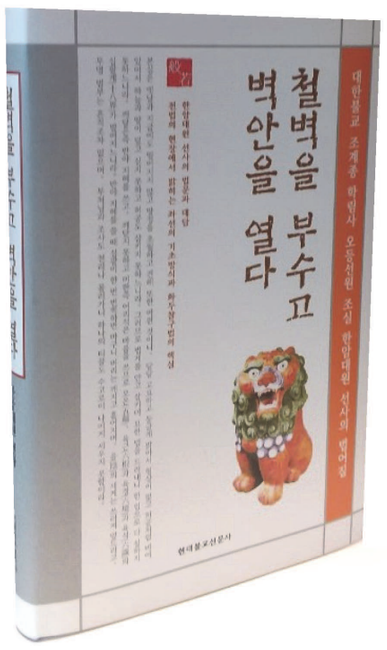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

푸르게살라

모든 어려움이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 화하길 발원합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선원 진주봉사단이 지역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휴게음식점 "푸르게살라"는 2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영업을 쉬고 있지만
4월 말에는 다시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진주봉사단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번지



| 공모주제 - 자유

-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지만 너무 잘 찍어서 혼자 보기에 아까운 사진
- 사찰, 경내, 꽃, 하늘, 도반, 순례, 포행, 인물, 동물등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사진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격하게 공감하고 싶은 사진 또는, 스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평범하고도 훈훈한 감동 있는 사진 등

| 출품방법

- BTN홈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출품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Mb 이상 10Mb 이하의 JPG파일
- 1인 10점까지 가능(출품비 없음)

※ 1인당 응모사진이 10장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수가 빠른 순대로 10장까지만 정식 접수됩니다. 이후는 응모작에서 제외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 6월 30일 / 심사발표 : 7월 말 BTN 홈페이지(개별통보)

| 공모대상

- 국내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만(외국인 스님 포함) 응모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응모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시 상

BTN사장특별상 (1명)	성지순례 상품권(130만원 상당)
대상 (1명)	상금 300,000원
금상 (3명)	상금 200,000원
은상 (4명)	상금 150,000원
동상 (5명)	상금 100,000원
가작 (10명)	상금 50,000원
입선 (10명)	20,000원(기프티콘)

| 문 의

-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검색, 친구추가 후 문의
- 또는 btnucc@btn.co.kr로 문의

[NOTICE]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는 순수 창작 사진이여야 하며,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합니다.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 결격사유 시 수상취소와 지급된 상금은 반환/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순위가 높은 분야만 시상하며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수상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분쟁 있는 경우.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